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에 나타난 한중(韓中) 인식 비교

손지봉*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연이 <김현감호(金現感虎)>에서 중국설화와 비교한 점에 착안하여 인간과 호랑이의 결연설화에 있어서 한국설화와 중국설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려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에서는 배우자를 얻지 못한 결핍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호랑이라는 이류(異類)를 만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호랑이의 수성(獸性)이 지닌 흉포성으로 인해 결핍의 해소는 바로 위기의 발미가 되고 한국이나 중국설화 모두에서 공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공통적이다. 다만 한국이 인성(人性)을 존중하고 인성의 회복을 위해 호랑이와의 결연을 끊는 설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현감호전승설화에서처럼 종교적으로 승화된 숭고한 인성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호랑이의 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사회의 부조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물리적으로 인간보다 강한 호랑이의 힘을 존중하는 면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호랑이의 흉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다른 인식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는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에서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상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특성과 물리적 힘의 존재를 존중하는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어 : 김현감호, 결연, 공생, 호랑이, 한중설화

* 이화여대

차례

1. 서론
2. <김현감호> 관련 연구 현황
3. 김현감호전승설화의 특징
4. 『한국구비문학대계』 호랑이의 흥포함과 다정함
5. 『중국민간고사전집』 호랑이의 흥포함과 우월함
6.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에 나타난 한중 인식 차이
7. 결론

1. 서론

한국에서 중국 호랑이 설화와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일연(一然)은 호원사(虎願寺)의 연기설화로 <김현감호(金現感虎)>를 기술하면서 중국설화 <신도징(申屠澄)>을 함께 거론하여 비교의 단초를 열었다.¹⁾

1)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興輪寺之殿塔爲福會 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不息 有一處女 念佛隨 相感而目送之 畢 引入屏處通焉 女將還 現從之 女辭拒 而強隨之 行至西山之麓 入一茅店 有老問女曰 附率者何人 女陳其情 曰 雖好事 不如無也 然遂事不可諫也 且藏於密 恐汝弟兄之惡也 把郎而匿之與 小選有三虎咆哮而至 作人語曰 家有腥之氣 療飢何幸 與女叱曰 爾鼻之爽乎 何言之狂也 時有天唱 爾輩嗜害物命尤多 宜誅一以懲惡 三獸聞之 皆有憂色 女謂曰 三兄若能遠避而自懲 我能代受其罰 皆喜首安尾而遁去 女入謂郎曰 始吾恥君子之辱臨弊族 故辭禁爾 今旣無隱 敢布腹心 且賤妾之於郎君 雖曰非類 得陪一夕之歡 義重結之好 三兄之惡 天旣厭之 一家之殃 予欲當之 與其死於等閑人之手 曷若伏於郎君刃下 以報之德乎 妾以明日入市爲害劇 則國人無如我何 大王必募以重爵而捉我矣 君其無 追我乎城北林中 吾將待之 現曰 人交人 倫之道 異類而交 蓋非常也 旣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伉儷之死 僥倖一世之爵祿乎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 蓋天命也 亦吾願也 郎君之慶也 予族之福也 國人之喜也 一死而五利備 其可違乎 但爲妾創寺 講真詮 資勝報 則郎君之惠莫大焉 遂相泣而別 次日果有猛虎入城中 剽甚無敢當 元聖王聞之 申令曰 截虎者爵二級 現詣

이 두 설화는 모두 호랑이와 인간의 만남과 이별을 그린 이류(異類) 결연 설화이다. 이 설화들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 과정은 유사하나 이별 과정은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다. <김현감호>의 호랑이가 연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면모를 보인다면 <신도장>의 호랑이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비정한 면모를 보인다.

한국에서 호랑이는 신화와 역사 그리고 민담에서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를 모두 보여준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곰과 함께 등장하는 동물이며, 산을 지키는 신령으로 불릴 정도로 존중 받는

關奏曰 小臣能之 乃先賜爵以激之 現持短兵 入林中 虎變爲娘子 熙怡而笑曰 昨夜共郎君之事 惟君無忽 今日被爪傷者 皆塗輿輪寺醬 聆其寺之螺鉢聲則可治 乃取現所佩刀 自頸而 乃虎也 現出林而託曰 今茲虎易矣 匿其由不洩 但依諭而治之 其瘡皆效 今俗亦用其方 現既登庸 創寺於西川邊 號虎願寺 常講梵網經 以導虎之冥遊 亦報其殺身成己之恩 現臨卒 深感前事之異 乃筆成傳 俗始聞知 因名論虎林 稱于今 貞元九年 申屠澄自黃冠 調補漢州什縣之尉 至眞符縣之東十里許 遇風雪大寒 馬不能前 路傍有茅舍 中有煙火甚溫 照燈下就之 有老父及處子 環火而坐 其女年方十四五 雖蓬髮垢衣 雪膚花 舉止妍媚 父見澄來 遽起曰 客甚衝寒雪 請前就火 澄坐良久 天色已暝 風雪不止 澄曰 西去縣尚遠 請宿于此 父曰 苟不以蓬爲陋 敢承命 澄遂解鞍施衾 其女見客方止 修容粧 自箔間出 有閑雅之態 猶過初時 澄曰 小娘子明惠過人甚 幸未婚 敢請自媒如何 翁曰 不期貴客欲採拾 豈非定分也 澄遂修子之禮 澄乃以所乘馬 載之而行 既至官 俸祿甚薄 妻力以成家 無不歡心 後秩滿將歸 已生一男一女 亦甚明惠 澄尤加敬愛 嘗作贈內詩云 一宦梅福三年愧孟光 此情何所喻 川上有鴛鴦 其妻終日吟 似默有和者 未嘗出口 澄罷官室歸本家 妻忽然謂澄曰 見贈一篇 尋卽有和 乃吟曰 琴瑟情雖重 山林志自深 常憂時節變 辜負百年心 遂與訪其家 不復有人矣 妻思慕之甚 盡日涕泣 忽壁角見一虎皮 妻大笑曰 不知此物尚在耶 遂取披之 卽變爲虎 哮吼擊攫 突門而出 澄驚避之 二子 尋其路 望山林大哭數日 竟不知所之 噫 澄現二公之接異物也 變爲人妾則同矣 而贈背人詩 然後哮吼擊攫而走 與現之虎異矣 現之虎不得已而傷人 然善誘良方以救人 獸有爲仁如彼者 今有人而不如獸者 何哉 詳觀事之終始 感人於旋佛寺中 天唱徵惡 以自代之 傳神方以救人 置精廬講佛戒 非徒獸之性仁者也 蓋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精於旋 欲報冥益耳 宜其當時能受禧佑乎 讚曰 山家不耐三兒惡 蘭吐那堪一諾芳 義重數條輕萬死 許身林下落花忙 <김현감호> 『삼국유사』 제7권 감동편, 동방미디어 <http://aks.koreaa2z.com>

신성한 동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호랑이는 산이나 마을에 출몰하여 인명을 해치는 동물로 조선시대 전염병과 함께 대량의 인명을 해치는 ‘호환(虎患)’의 존재로 일컬어졌다.(정연식, 2004) 또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산길에서는 오누이의 어머니를 해치고 마을에 내려와 오누이까지 해치려 한 흉포한 동물이다. 이 설화에서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이다. 이 외에 <호랑이와 꽃감>설화에서는 우매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허원기(2003)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비롯한 야담집에도 많이 실려 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518건의 호랑이 설화가 채록되어 있으며, 박지원의 <호질(虎叱)> 등 소설이나 기타 산문에도 많이 등장하는 등 우리 서사문학 전반에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의 유형을 ‘신령스러운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인정 많은 호랑이’, ‘은혜 깊은 호랑이’, ‘변신과 관련된 호랑이’, ‘사나운 호랑이’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국 호랑이 설화에서도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를 함께 가진 존재로 그려졌는데 소원평(肖遠平, 2008)은 묘족(苗族)의 호랑이 민담 유형으로 크게 ‘나쁜 호랑이 유형(惡虎型)’, ‘의로운 호랑이 유형(義虎型)’, ‘변신형(化身型)’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한중 양국이 모두 호랑이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되 특히 변신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점이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 호랑이 설화에서 변신형을 비교하되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과 이별에 관계된 설화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일연이 <김현감호>에서부터 이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²⁾

2) ‘변신’은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연’은 짝이 없는 존재에게 ‘결핍의 해소’이나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은 호랑이의 수성(獸性)과 인간의 인성(人性)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한 ‘위기’이기도 하다. 이 위기 극복

본고에서는 먼저 <김현감호> 관련 연구현황을 짚어보고, 이어서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김현감호전승설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민간고사전집』과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수록된 호랑이와 인간과의 결연설화를 통해 호랑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2. <김현감호> 관련 연구 현황

<김현감호>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갈래의 정의 즉 전기소설인지 아니면 구비설화인지를 가름하는데 중심을 두었다³⁾ 임재해(1984)는 일찍부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김현감호> 전승설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비문학대계』에 실린 김현감호 전승설화로 <신흥사의 유래>⁴⁾, <호암사의 유래>⁵⁾, <호륵사의 유래>⁶⁾, <호랑이 처녀>⁷⁾ 등 4편을 소개하고 ① 호랑이 처녀가 자칭하여 청년의 손에 죽고 ② 청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큰 성취를 이루며, ③ 호랑이 처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을 지어준다 등 세 화소가 김현감호의 뿌리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신흥

여부에 따라 공생여부가 결정되는데 <김현감호>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이별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한 숭고한 죽음으로 이별을 승화시키고 숭고한 호랑이상을 정립한 특징이 있다.

3) 당위첸(2014, 95~97)은 임형택(1981), 박자선(1987), 임갑량(1998) 등은 전기소설로 주장하고, 임재해(1986), 정충권(1995), 송효섭(1986), 정상진(1995) 등은 설화라고 하였으며, 조동일(1982), 장효현(2002), 박일용(1995) 등은 설화와 소설의 중간단계로 보았다고 정리하였다.

4) <신흥사의 유래>, 진경성(남, 29) 당진군 신평면, 『한국구비문학대계』 4-1, 177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한국구비문학대계』 4-1, 177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대계』4-1, 177 로 생략)

5) <호암사의 유래>, 김복중(남, 79) 월성군 감포읍, 『대계』 7-2, 701.

6) <호륵사의 유래>, 김만갑(남, 69), 월성군 감포읍, 『대계』 7-2, 770.

7) <호랑이 처녀>, 김임수(여, 68) 거제군 신현읍, 『대계』 8-1, 51.

사의 유래>, <호암사의 유래>, <호륜사의 유래> 등 세 편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 편의 구연자가 뛰어난 이야기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위 4편 외에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⁸⁾, <호랑이 처녀의 죽음>⁹⁾, <호랑이의 보은>¹⁰⁾ 등 3편이 더 있는데 이들이 제외된 이유는 임재해의 논문 발표 이후 간행되었기 때문이다.¹¹⁾ 본고에서는 이 3편도 아울러 다루기로 한다. 임재해의 연구는 <김현감호> 전승설화를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찾아 내어 설화임을 증명한 점과 화소를 제시하여 구조적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의의가 있다.¹²⁾

송효섭(1986)은 <김현감호>와 <신도징>의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김현감호>는 ① 김현이 흥륜사의 복회(福會)에 가다(결핍)- ② 처녀와 정을 통하다(결핍의 충족)- ③ 처녀의 집에 숨어 고난을 겪다(새로운 결핍)- ④ 남자로 변신한 범이 자결하다(결핍의 충족)-⑤ 김현이 벼슬을 하고 호원사를 세우다(또 다른 결핍의 충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신도징>은 ① 신도징이 길가 초가에서 묵다(결핍)- ② 처녀와 정을 통하다, ③ 처녀와 행복하게 살다(결핍의 충족)- ④ 처녀가 범으로 변신하여 도망가다(새로운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장엄과 선한 유혹이 뚜렷한 김현 전승은 민담이며, 공포와 악한 유혹이 뚜렷한 신도징전승은 전설이라고 결론지었다.

임재해가 <김현감호>의 특정 부분을 뿌리화소로 정하여 전체 서사구조

8)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 강은상(남, 56), 신안군 하의면, 『대계』6-6, 577.

9) <호랑이 처녀의 죽음>, 오기생(남, 73) 경주시, 『대계』7-3, 588.

10) <호랑이의 보은>, 김분선(여, 76) 대구시, 『대계』7-13, 328.

11) 『한국구비문학대계』 82권이 최종적으로 출판된 시기는 이보다 늦지만 당시 임재해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다.

12) 이호주(1996)는 호랑이 설화 중에 하나인 보은설화로 다루었으며, 조하연(2012)은 송고와 비극을 지닌 설화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설화구조와 함께 논의하지 않았기에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를 경시한 것과 달리 송효섭은 전체 서사구조를 포괄하여 논하고 또 중국 설화를 아울러 논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논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현 전승을 민담으로 본 점과 <신도징>을 김현 전승과 대척적인 설화로 본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¹³⁾ 또한 <신도징>은 『태평광기』 소재 다른 호랑이설화에 비해 공포와 악한 유혹이 약한 편이다.¹⁴⁾

김기호(2005) 역시 <김현감호>의 화소에 주목하였다. 호랑이 결연 설화를 결말 양상에 따라 희극, 희비극, 비극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되 <김현감호>는 희비극이라고 하였다. 김기호가 나눈 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호랑이가 인간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함께 살고자 한다(결핍)
- ② 호랑이가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하여 탐돌이를 한다(문제 해결 시도)
- ③ 호랑이가 이성과 만나 아름다운 청춘의 사랑을 나눈다(문제 해결의 성공)
- ④ 호랑이가 이성과 함께 자기 집에 도착한다(충족)
- ⑤ 호랑이가 이성과 이별의 위기에 놓인다.(위기)
- ⑥ 호랑이가 이별을 육신과 영혼으로 이원화시켜 극복을 시도한다.(위기 극복의 시도)
- ⑦ 호랑이가 육신의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이성과 이별을 한다.(위기 탈출의 실패)
- ⑧ 호랑이가 이성과 영혼의 가약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결합을 얻는다.(위기탈출의 성공)

13) 김현 전승도 절의 연기설화인 점과 호랑이 처녀가 비극적으로 죽는 상황 등을 볼 때 전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태평광기』의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 중에 <원쌍(袁雙)>은 혼인 후에도 호녀가 여전히 사람의 사체를 먹었으며, <최도(崔韜)>에서는 호랑이 처가 호랑이 가죽을 입고 호랑이로 변한 뒤 최도와 아들을 잡아 먹었다고 하였다.

김기호가 이 설화를 희비극으로 본 이유는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여 호랑이의 육신이 죽은 것은 비극이지만 호랑이의 영혼이 이성과 가약을 맺은 것은 희극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송효섭이 호녀(虎女)의 자살이 김현의 위기 극복을 이루게 했다는 점에서 결핍의 충족으로 보고 또 김현이 벼슬을 하고 호원사를 세운 것도 또 다른 결핍의 충족으로 본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그러나 김현이 추구한 결연이 영혼의 가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포교의 도구인 절을 짓게 되었다는 점에서 희극적 결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류 결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공생을 이루지 못하고 이별한 비극적 결말을 보인 설화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기호의 논의는 명쾌한 풀이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서사구조를 좀 더 세분하여 정리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당위첸(2014)은 『태평광기』 소재 설화 중 호랑이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인간 남자와 결연하는 4편의 이야기를 들어 ① 만남(인간으로 化身), ② 결연, ③ 갈등, ④ 이별(호랑이로 還源) 등의 구조로 정리하고, 일연이 이 4편 중에 <신도징>을 <김현감호>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설화에 비해 호랑이에게 수성(獸性)보다 인간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현감호>와 『태평광기』 소재 설화와의 차이는 ‘④ 환원(還源)으로 인한 이별’이 아니라 ‘④ 죽음으로 인한 이별’로 설정된 점이라 하고 호녀의 희생을 통한 신성화에 <김현감호>의 독자성이 있다고 하였다.

『태평광기』 소재 설화의 ‘만남-결연-갈등-이별’구조는 위에서 논의한 ‘결핍-결연-위기-성공(실패)’와 같으며, ‘시도’를 생략했을 뿐으로 보인다. 이류 결연설화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서사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수성’과 ‘인성(人性)’에 대한 언급이다. <김현감호>는 한국설화이며 『태평광기』설화는 중국설화인데 <신도징>이 『태평광기』설화 중에 인성이 많은 설화여서 비교대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은 당시 한국설화와 중국설화의 차이 중의 하나가 인성과 수성이며, 한국 설화가 인성을 중국설화가 수성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덩위첸(2014)이 분석한 『태평광기』 호녀이야기에서 <원쌍>은 혼인 후에도 호녀가 여전히 사람의 사체를 먹었다고 하였고, <천보선인(天寶選人)>에서는 호녀가 남편에게 호랑이 가죽을 달라한 뒤 이를 입고 호랑이로 변신해 떠났다고 했다. <신도징> 역시 호랑이 처가 호랑이 가죽을 입고 떠났으며, <최도>에서는 호랑이 처가 호랑이 가죽을 입고 호랑이로 변한 뒤 최도와 아들을 잡아먹는다. <원쌍>과 <최도>에서는 흉포한 호랑이의 면모가, <천보선인>과 <신도징>에서는 비정한 호랑이의 면모가 나타난다. 여기서 흉포함에 비해 비정함은 인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을 해친 호녀처럼 흉포한 호랑이와 이성과 자기 족속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호랑이의 면모를 보인 한국의 <김현감호>와 대비된다.

3. 김현감호전승설화의 특징

필자의 생각에 김현감호전승의 핵심은 이류교혼에서 생기는 갈등을 희생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 있으며, 이 희생은 바로 인류가 본받아야 하는 이상적인 ‘인성’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와 사람은 이류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배우자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고 차이점은 인성과 수성에 있다. 전반부에는 배우자를 필요로 하는 공통점에 의해 맺어졌지만 이는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켰으며, 『태평광기』 설화에서는 수성을 극복할 수 없는 호랑이가 어느 순간 서로 헤어지거나 상대를 잡아먹는 비극으로 치달았는데 <김현감호>의 호녀는 이상적인 ‘인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한다. 이런 차원에서 <김현감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호랑이와 인간이 배우자를 맞이하여 함께 살고자 한다.(결핍)
- ② 호랑이가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하여 탐돌이를 한다(해소 시도)
- ③ 호랑이와 인간이 이성으로 만나 아름다운 청춘의 사랑을 나눈다(해소)
- ④ 호랑이와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려다가 위험에 처한다(위기)
- ⑤ 호랑이가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한다.(극복 시도)
- ⑥ 호랑이가 죽어 인간과 이별하게 된다.(해결)
- ⑦ 인간이 출세하고 그 보답으로 절을 지어준다.(결말)

여기서 ①, ②, ③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호랑이와 인간의 공통점이 발현되어 서로 맺어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④, ⑤, ⑥은 공생할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호녀가 자신의 형제는 물론 인류인 인간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여 죽음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⑦의 인간의 출세와 보답은 호녀의 죽음을 숭고하게 하지만 호랑이와 인간이 공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①이 ‘결핍’인 점은 <김현감호>의 내용에서 김현이 ‘야심한데 혼자 쉬지 못했다(夜深獨不息)’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자라서 밤늦게 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성에 대한 결핍 상태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②의 탐돌이에서의 소원은 배우자를 만나려는 행동으로 읽힌다. 결핍 해결을 위한 시도인 셈이다. ③은 배우자를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해결’을 이룬다. 원문에서는 ‘가려진 곳으로 끌고 가서 통하였다(引入屏處通焉)’고 하였다. ④는 구체적으로는 호녀의 오빠들에 의해 김현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점에서 ‘위기’이지만 진정한 문제는 공생할 수 없는 김현과 호녀가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공생하려 한 점에서 기인한 ‘위기’라 할 수 있다. 원문을 보면 단순히 김현이 호녀를 따라 가고 호녀의 집에서 호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처녀의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본격적인 혼인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인간과 호랑이의 공생이 불가능함을 호랑이 오빠들이 확인시켜 준 셈이다. 호랑이 오빠들은 ‘집에서 비린내가 나니 요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家有腥之氣 療飢何幸)’라고 하여 김현이 호랑이에게는 먹이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준다. ⑤는 호녀가 죽속을 위해 대속(代贖)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가깝게는 당장 위기에 처한 연인을 구하기 위한 위기 극복의 시도이다. 이류와 공생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성과의 생이별은 위기 극복이 되지 못하므로 죽음으로 위기 극복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⑥은 호녀의 위기 극복 시도에 의해 김현은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점에서 위기가 극복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연의 결말인 공생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성’과 ‘수성’이 공존할 수 없음을 드러낸 점은 중국설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⑦은 남자가 출세하고 호녀의 소원을 성취시켜 짝을 지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 결말인 듯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교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이 설화에서 최초의 결핍은 이성과의 결연과 공생에 있다고 할 때 이성과의 사별후 부귀 획득은 반쪽의 성공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모가 『한국구비문학대계』 7편의 설화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정리하면 <표1>과 같다.

<김현감호>는 경주에 있던 홍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주사가 설화의 전승지이며 다른 지역은 전파지로 볼 수 있다. <호암사의 유래>, <호륜사의 유래>, <호랑이 처녀의 죽음> 등은 모두 경주시에 전승되는 내용이며, <호랑이의 보은>은 대구, <호랑이 처녀>는 거제 등 경상도에 전승되는 설화이다. 한편 <신흥사의 유래>는 충청도 당진,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는 진주 등에 전승되는 설화이다. 그러나 <호암사의 유래>와 <호륜사의 유래>를 구연한 구연자에 생평에 대한 언급이 다른 구연자에 비해 조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토박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1〉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김현감호전승설화 구조 비교

	〈신홍사의 유래〉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	〈호암사의 유래〉	〈호륜사의 유래〉	〈호랑이 처녀의 죽음〉	〈호랑이의 보은〉	〈호랑이 처녀〉
① 결핍	머슴이 배우자를 찾고자 함	사람이 복을 받고자 함	경주 토박이가 불공축원을 드림	젊은이가 공을 세우려 함	총각이 월성에서 경비를 함	×	집안이 가난한 총각이 산에 오름
② 해소 시도	이백일간 탑돌이를 함	한달간 탑돌이를 함	절을 세바퀴 돌아야 함	절을 세바퀴 돌게 됨	×	총각이 사월 초 파일에 여드레 동안 탑을 돌	빨래하는 처녀를 만남
③ 해소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을 나눔	아리따운 호녀를 만나 부부같이 됨	여자를 만나 잘 늙	×	×	×	처녀의 요구에 따라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를 죽임
④ 위기	호랑이 오빠들 때문에 위기에 놓임	호랑이 오빠들 때문에 기절함	호랑이 오빠들이 잡아먹으려 함	여자를 따라 갔다가 오빠들 때문에 위기에 처함	여자를 따라 갔다가 오빠들 때문에 위기에 처함	여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가 위기에 처함	×
⑤ 극복 시도	호녀가 대신 죽을 것을 약속함	사람을 기절시켰다며 내보냄	하늘이 노했다며 오빠들을 도주시킴	어머니와 호녀의 야단에 오빠들이 돌아감	호녀가 헛소리라며 오빠들 돌려보냄	호녀가 자신이 대신 죽을 것을 약속함	×
⑥ 해결	호녀의 죽음	호녀의 죽음	호녀의 죽음	궁성을 어지럽힌 호녀를 죽임	궁성을 어지럽힌 호녀를 죽여	사람들을 상처 입힌 호녀를 죽임	사람을 해친 호녀를 죽임
⑦ 결말	머슴은 부귀를 얻고 신홍사 산 신각을 지어 호녀를 기림	사람은 공을 세움	경주 토박이가 부귀를 얻어 호암사를 짓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 기림	호륜사를 지음	부귀를 얻은 뒤 화랑이 됨	총각이 부귀를 얻음	총각이 부귀를 얻음

그렇지만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으로 유명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전승 이야기에 대해 잘 알 것으로 여겨져서 이 지역 전승을 구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랑이 처녀의 죽음>을 구연한 오기생(『대계』 7-13, 561, 경주시 제보자4)은 경주 토박이이다. <호랑이의 보은>을 김분선(『대계』 7-13, 38, 대구시 제보자18)은 상주 출신으로 19세에 예천군으로 시집갔고 1983년 현재 대구에 산 지 30년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행가를 부를 정도로 문화 수용 능력이 뛰어나며 혼자서 14편을 계속 구연할 정도의 이야기꾼이다. <호랑이 처녀>를 구연한 김임수.(『대계』 8-1, 25, 신현읍 제보자3)는

신현읍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살다가 동부면에 가서 20년 정도 살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신흥사의 유래>를 구연한 진경성(『대계』4-1, 170, 신평면 제보자1)은 신평면 토박이지만 젊고 객지를 다니기를 좋아하는 재담꾼이다. 이 설화가 이 지역 전승설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를 구연한 강은상(『대계』6-6, 539, 하의면 제보자1)은 경상도 진주에서 입도하여 12대째 살고 있는 농사꾼이다. 이로 볼 때 진주에서 살던 선대의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연자들의 경력으로는 어떤 설화가 보다 원본에 가까운 전승을 유지하고 있을지 추정하기 어렵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모든 요소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설화는 <신흥사의 유래>,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 <호암사의 유래> 등 세 편이다. 이 외에 <호륜사의 유래>는 서두의 결연서사 중에 결연요소 즉 ‘해소’ 부분만 생략되고 비교적 온전한 구조를 갖추어 <김현감호>에 이어 송고한 호랑이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호랑이 처녀의 죽음>, <호랑이의 보은>, <호랑이 처녀> 등은 ‘결핍’, ‘해소 시도’, ‘해소’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류결연설화로 보기 어렵다. ‘결핍’, ‘해소 시도’ 등의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 이는 위기극복과 해결을 구연하기 위한 서두부분으로 구연되는 것이지 결핍과 해소를 위한 구연은 아니다. 즉 <호랑이 처녀의 죽음>에서 화랑이 월성의 경비를 든 것과 <호랑이의 보은>에서 총각이 탑돌이를 한 것 등은 모두 부귀의 획득을 위한 것이지 이류와의 결연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호랑이 처녀>에서는 호녀의 어머니와 오빠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 애초부터 이류와의 공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으며, 자기 족속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송고성마저 훼손되고 그저 배우자만을 위한는 맹목적인 호랑이로 그려지고 있다.

4. 『한국구비문학대계』 호랑이의 흥포함과 다정함

앞장에서 소개한 김현감호 전승 외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인간과 호랑이의 결연을 다룬 설화로는 <호랑이가 된 신부>¹⁵⁾,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¹⁶⁾,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¹⁷⁾, <호랑이와 산 처녀>¹⁸⁾, <호랑이와 사내>¹⁹⁾, <사위 호랑이>²⁰⁾ 등 6편을 들 수 있다. 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1) <호랑이가 된 신부>

- ① 신랑이 신부집 병풍 소리에 놀라 돌아가서 신부가 소박 신세가 된다-결핍
- ② 신부가 바로 산으로 올라가 산신령이 되고 싶다고 공을 드린다.-해소의 시도
- ③ 신랑이 장가가려고 집을 보니 산에 간 신부가 십년이 되어 입과 앞발 외에는 모두 호랑이가 되었으므로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 한다.-위기
- ④ 신랑에게 산에 신부를 찾아가 빌라하니 그대로 한다. -극복의 시도
- ⑤ 신랑이 호랑이 신부의 요구대로 첫닭 울 때까지 바위를 돌고 신부를 선산에 묻어 주어 용서를 받는다.-해결
- ⑥ 그 뒤 신랑은 장가가서 잘 살게 된다.-결말

15) <호랑이가 된 신부>, 김달삼(여, 53) 해남군 화산면, 『대계』6-5 348.

16)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 김달삼(여, 53) 해남군 화산면, 『대계』6-5 353.

17)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 박금순(여, 63) 신안군 암태면, 『대계』6-6 693.

18) <호랑이와 산 처녀>, 최순애(여, 76) 전남 도곡면, 『대계』6-10 198.

19) <호랑이와 사내>, 이월아(여, 70) 하청면, 『대계』8-1 338.

20) <사위 호랑이>, 정남이(여, 69) 무안면, 『대계』8-7 502.

한2)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

- ①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힘들어서 밭을 매 주면 딸을 주겠다고 혼자 밭을 한다.-결핍
- ② 호랑이가 나타나 밭을 매고 딸을 달라 하여 데려간다.-해소 및 위기1
- ③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총을 메고 동생을 찾으러 간다.-극복의 시도
- ④ 호랑이가 없을 때 여동생과 조카들을 찾아 배를 타고 돌아온다.-해결1
- ⑤ 호랑이가 여인과 자식을 쫓아 온다-위기2
- ⑥ 호랑이가 배까지 쫓아오다 익사하였으며, 남편혼령이 와서 자신은 호랑이 탈을 쓴 것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라고 원망하여 가버린다.-해결2
- ⑦ 딸이 배를 짜면서 아이들과 산다.-결말

한3)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

- ① 어떤 사람이 공을 들여 딸과 아들을 갖는다.-서두
- ② 호랑이가 누나를 위협하여 잡아간다.-해소 및 위기1
- ③ 동생이 배와 무기 등을 갖추어 누나를 찾으러 가고 누나는 동생을 감추기 위해 호랑이를 다독거린다.-극복의 시도1
- ④ 호랑이 몰래 배타고 도망간다.-해결1
- ⑤ 호랑이가 쫓아온다.-위기2
- ⑥ 동생이 활을 쏜다-극복의 시도2
- ⑦ 호랑이가 죽는다 - 해결2
- ⑧ 고향에 돌아와 누나를 시집보내고 마을에서 잘 살게 된다.-결말

한4) <호랑이와 산 처녀>

- ① 호랑이가 큰 애기를 잡아가 아내로 삼는다-결핍 해소 및 위기
- ②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아내에게는 쌀과 나무로 밥을 해 먹게 한다.-위기 고착
- ③ 한달 뒤 큰 애기가 호랑이에게 부모 뵈러 집에 보내달라고 한다-위기

극복의 시도

- ④ 호랑이가 마중나온 큰 애기 어머니를 잡아먹는다.-위기 고조
- ⑤ 큰애기가 더는 살지 못하겠다고 한다-위기 극복의 시도2
- ⑥ 호랑이가 큰 애기를 그대로 두고 가버린다.-해결

한5) <호랑이와 사내>

- ① 호랑이에게 잡혀간 남자가 호랑이 입의 비너를 뽑아주고 호랑이와 살게 된다.-위기1
- ② 호녀와 새끼 네 마리를 낳는다 - 위기 고착
- ③ 남자가 도망나온다-극복의 시도2
- ④ 호랑이가 남자를 쫓아온다- 위기2
- ⑤ 남자를 찾지 못하자 아이들을 물어와 하나씩 죽여 강물에 버리고 돌아간다.-해결
- ⑥ 남자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산다.-결말

한6) <사위 호랑이>

- ① 호랑이 꿈을 꾸고 난 딸이 호랑이에게 잡혀간다.-결핍 해소 및 위기
- ② 호랑이가 먼저 잡아논 못난 처녀는 돌려보내고 이 처녀와 함께 산다.-위기 고조
- ③ 호랑이가 가족을 벗어나 사람이 되어 처녀와의 사이에 아이 셋을 둔다.-위기 전환 및 해결
- ④ 6년 뒤에 아이들과 함께 처가를 찾아가 인사하고 잘 살게 된다.-결말

이 설화들을 김현감호 전승과 비교하여 결연과 공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2), 한3), 한4), 한5), 한6) 등 5편의 설화에서 결연의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랑이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1)의 경우 신부는 본래 인간이었으나 배신을 당한 후 호랑이로 변하려 하는데 이는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이 설화들의 ‘결연’에 있어서

힘의 우위에 따른 차이가 중요요소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김현감호>가 이성에 대한 ‘결핍’을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면 여기에 소개된 설화들은 이성에 대한 결핍을 힘의 우위에 있는 자 즉 호랑이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해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요소 때문에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은 결핍 해소의 화소 보다는 위기의 화소로 읽힌다.

강제로 결연된 인간은 한1), 한4), 한5)처럼 스스로 또는 한2)와 한3)처럼 가족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을 시도한다. 이는 인간세계로의 귀환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수성보다 인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호랑이의 죽음으로 위기가 극복되거나 호랑이가 이성의 어머니를 잡아먹거나, 자식을 죽여 버리는 흉포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인간과 호랑이가 공생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결말에 이른다. 유일하게 이류 공생이 용납되는 설화는 <사위 호랑이>인데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의 짝이 될 팔자였고 호랑이는 가족을 벗어나 사람이 되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인간세계에 화합하는 다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호랑이가 인간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다정한 인성을 지니고 있어 공생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²¹⁾

<김현감호>와 달리 이 설화들에서의 결연은 결핍 해소 보다는 위기의 요소로 읽힌다. 그 이유는 결연한 호랑이가 수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중국설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기 극복의 목적이 인간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며, 극복의 방식이 인간의 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중국설화와 다르다. 이는 한국설화 구연자들이 ‘인성’을 긍정하고 ‘인성’

21) 신도정전승에서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가 가족을 입으면 호랑이가 된다고 했는데 한국설화에서는 호랑이가 가족을 벗어나 사람이 된다고 하고 있어 사람과 호랑이의 차이는 가족 여부에 달려있는 듯이 구연되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동물이 같고 다만 가족의 차이에 따라 이류가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 ‘수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한6)은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설화이다. 한6) 역시 처녀를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점에서 ‘위기’로 읽히지며, 처녀를 잡아간 호랑이가 이미 다른 처녀를 잡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고조되거나 가족을 벗어나 사람이 되는 점을 이용하여 처와 함께 인간세계에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에서 인간세계에서의 공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5)와 한6)은 모두 호랑이와 인간의 공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5)는 호랑이세계에서의 공생을 추구하여 호랑이의 우월성을 강조한 반면 한6)은 인간세계에서의 공생을 추구하여 다정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5. 『중국민간고사전집』 호랑이의 흥포함과 우월함

『중국민간고사전집』에 있는 설화는 <호랑이 정령(老虎精)>²²⁾, <호랑이 청년(虎小伙)>²³⁾, <호랑이처녀의 결혼(虎姑娘結親)>²⁴⁾, <호랑이 처(虎妻)>²⁵⁾, <호랑이에게 시집간 치방(稚榜嫁虎)>²⁶⁾ 등 6편을 들 수 있다.

중1) <호랑이 정령>

- ① 요족(瑤族)의 난교, 난서 자매가 서로 자기 동족 중에 중에 결연할 만한 남성이 없다고 토로한다-결핍

22) <老虎精> 구연: 蒙通順 『중국민간고사전집』6, 423면

23) <虎小伙> 구연: 潘文昭 『중국민간고사전집』12, 428면

24) <虎姑娘結親> 구연자 미상 『중국민간고사전집』14, 510면.

25) <虎妻> 구연: 代俄溝兎汝 『중국민간고사전집』16, 91면.

26) <稚榜嫁虎> 구연: 李張氏 『중국민간고사전집』18, 478면.

- ② 마을 밖으로 나가 동족 외의 남자를 구하러 갈 것을 논의한다. -해소의 시도
- ③ 이 말을 들은 호랑이가 남자로 변해 이들을 만나려 한다. -위기
- ④ 자매는 나무위로 올라가 호랑이를 피한다.-위기 극복의 시도
- ⑤ 사냥꾼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위기 극복

중2) <호랑이 청년>

- ① 부자 자제로 변해 부녀가 많은 동네에 잠입한 호랑이가 게으른 처녀들이 먼 지방의 남자를 속여 팔자 고치려는 것을 알게 된다.-결핍
- ② 야밤에 호랑이가 처녀들과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해소의 시도
- ③ 처녀들이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있는데 나중에 온 호랑이들이 처녀들이 오지 않은 줄 알고 마을에 가서 잡아먹자고 한다-위기
- ④ 여자들이 오줌을 싣다-극복의 시도
- ⑤ 호랑이들이 비로 착각해서 집으로 돌아간다.-해결
- ⑥ 사실을 안 처녀들이 먼 지방 남자를 찾으려 한 잘못을 고친다.-결말

중3) <호랑이처녀의 결혼>

- ① 추한 관공과 잘 생긴 야상은 친한 친구인데 관공이 혼인을 못했다. -결핍
- ② 야상이 관공을 혼인시키고자 깊은 산속에 데려 간다. - 해소 시도
- ③ 호녀가 야상을 집으로 초대하고 관공을 증인 세워 야상과 혼인하겠다고 위협한다. -위기1
- ④ 야상과 관공이 어쩔 수 없어 울음을 운다.- 극복의 시도1
- ⑤ 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매가 찾아와 호랑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트린다 해결1
- ⑥ 호랑이 가족이 좋아 죽지 않은 호랑이가 다시 들을 위협한다.- 위기2
- ⑦ 꿀벌이 와서 피를 내어 두 사람에게 날개를 주어 도망갈 수 있게 한다.- 극복의 시도2
- ⑧ 이를 안 호랑이가 화를 내다가 떨어져 죽는다.-해결2

⑨ 날개를 단 아상은 까치가 되고 관공은 까마귀가 된다.-결말

중4) <호랑이 처>

- ① 먼 곳으로 시집가던 처자가 소변보러 나왔다가 호랑이에게 먹힌다.-서두
- ② 신부를 가장한 호랑이가 신랑집에 간다. -위기1
- ③ 여동생이 신랑에게 신부가 호랑이임을 알리니 신랑이 친구를 부르러 간다. -극복의 시도1
- ④ 호랑이는 여동생을 잡아먹고, 신랑은 호랑이 식구를 모두 데려 오게 하여 불에 타죽게 한다.-해결1
- ⑤ 홀로 남은 어미호랑이가 호랑이를 늘려 인류를 제거하겠다고 한다.- 위기2
- ⑥ 신선이 호랑이의 후손을 적게 만들고 사람을 피하고 돼지를 먹게 한다.-해결2
- ⑦ 이족 신부는 시집갈 때 소변을 보지 못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다.-결말

중5) <호랑이에게 시집간 치방>

- ① 언약 했던 문둥이집에서 치방과 혼인하려 한다-위기1
- ② 치방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시집가겠다고 한다.- 극복의 시도1
- ③ 치방은 밭에서 이 말을 들은 호랑이에게 잡혀가고 멋진 남자로 변신한 호랑이와 같이 산다. -해결1
- ④ 팔구년 후 치방이 고향 생각을 하여 호랑이 사위와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를 찾아간다. 치방이 돌아온 소식을 들은 문둥이집에서 치방을 요구한다.-위기2
- ⑤ 치방이 호랑이 사위 가족을 부른 뒤 문둥이집식구를 초청한다.-극복의 시도2
- ⑥ 문둥이집에서 치방을 포기하게 된다.-해결2
- ⑦ 호랑이 사위가 딸과 아이들을 태우고 호랑이 가족을 따라 간다.-결말

위 다섯 편의 설화는 각각 요족(瑤族), 수족(水族), 동족(侗族), 이족(彝族), 묘족(苗族) 등 소수민족의 설화이다. 중1), 중2), 중5) 등 세 편의 설화는 이족(異族)과의 혼인을 꿈꾸는 여성을 그렸다. 중1), 중2)는 이류인 호랑이가 그 사실을 알고 변신하여 결연을 추구하였음을 그렸다. 다만 이들은 수성의 존재로서 이 여성들을 잡아먹으려 하였다. 호랑이의 흉포성으로 인해 이류와의 공생은 물론 결연 자체가 불가능함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중5)는 호랑이의 우월성에 의해 이류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세 설화는 <김현감호>나 <신도정설화> 등 『태평광기』 소재 설화와 차이를 보인다. 이류와의 결연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류와의 공생까지 긍정하는 면모를 보인다. 특히 중5)에서는 이류와의 혼인이 동족과의 혼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수성을 인성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중3)과 중4)에서는 혼인을 빙자하여 인간을 핍박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그렸다. 이류 공생이 불가능한 이유가 호랑이에게 있으며, 호랑이가 인간에게 바라는 결연은 이성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려는 인식보다는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흉포한 수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태평광기』설화에서 호랑이와 인간이 이성을 필요로 하는 공통성에 의해 결연을 하지만 결국 호랑이의 흉포성과 비정함에 의해 공생을 하지 못하고 결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소수민족 설화에 나타나는 모습은 결연을 수단으로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흉포한 호랑이도 있지만 우월한 호랑이도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태평광기』시대와 『중국민간고사집』 시대 중국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은 인간은 호랑이와의 공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호랑이가 수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민간고사전집』에는 중1)과 중2)는 결연자체가 불가능함을 구연하였고, 중3)과 중4)에서는 결연을 하기는 했지만 공생이 불가능한 이

유에 대해 호랑이가 수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다. 예외적으로 중5)를 구연한 묘족의 경우 호랑이를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이류로 여기며 호랑이 세계에서의 공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호랑이 토템을 지닌 묘족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6.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에 나타난 한중 인식 차이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호랑이 설화 중 변신형 중에 인간과의 결연과 공생을 다룬 설화를 통해 호랑이에 대한 인식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도표화 하면 <표2>와 같다.

한국과 중국의 호랑이는 모두 흉포하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국설화인 <김현감호>의 호랑이는 사람들을 헤쳐서 포획의 대상으로 지목되지만 나중에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제공하여 흉포함을 희석시킨다. 이러한 면모는 『구비문학대계』 김현감호전승설화로 이어진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 등의 호랑이는 인간을 강제로 배우자로 취하고 또 탈출하는 인간을 죽을 때까지 추격하였고, <호랑이와 산 처녀>는 자식을 물어죽이는 흉포함을 보였다면, <호랑이와 사내>는 배우자의 어머니를 물어죽이는 흉포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설화 호랑이의 흉포함은 공생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표출되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설화인 『중국민간고사전집』의 <호랑이 정령>, <호랑이 청년>, <호랑이처녀의 결혼>, <호랑이 처> 등의 호랑이는 호시탐탐 사람을 잡아 먹으려는 매우 흉포한 호랑이이며, 『태평광기』의 설화 중 <원쌍>과 <최도>의 호랑이는 사람의 사체를 먹고, 남편과 아들을 잡아먹는 극도로 흉포

〈표2〉 한중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면모

종류	『삼국유사』	『한국구비문학대계』	『태평광기』	『중국민간고사전집』
흥포한 호랑이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 <호랑이와 산 처녀>, <호랑이와 사내>, <사위 호랑이>	<원쌍> <취도>	<호랑이 정령>, <호랑이 청년>, <호랑이 처녀의 결혼>, <호랑이 처>
비정한 호랑이			<신도정> <천보선인>	
다정한 호랑이		<사위 호랑이>		
우월한 호랑이				<호랑이에게 시집간 치방>
숭고한 호랑이	<김현감호>	<신흥사의 유래> <탐돌이와 호랑이 처녀> <호암사의 유래> <호륜사의 유래> <호랑이 처녀의 죽음> <호랑이의 보은> <호랑이 처녀>		

한 호랑이이다. 중국설화 호랑이의 흥포함은 인간을 공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포식의 대상으로 여기는 호랑이의 수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설화에 보이는 중국의 호랑이는 비정하지만 한국의 호랑이는 다정하다. 『태평광기』의 <신도정>과 <천보선인>의 호랑이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비정한 호랑이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사위 호랑이>는 호랑이의 탈을 벗고 인간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다정한 호랑이이다. 중국의 호랑이가 수성을 살릴 수 있는 자연세계를 선택했다면 한국의 호랑이는 수성을 버려야 하는 인간세계를 선택하고 있다. 『중국민간고사전집』의 <호랑이에게 시집간 치방>은 인간보다 우월한 호랑이를 그리고 있다면 『삼국유사』의 <김현감호>,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김현감호전승설화에서는 자신의 족속과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호랑이를 그리고 있다. 중국설화에서는 호랑이 집단의 우월성을 나타냈다면 한국설화에서는 특정

호랑이의 숭고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 숭고한 희생의 목적이 절을 짓는 것이라 하여 종교적 순교이며 인성의 발현으로 이해하게 한다. 즉 <김현감호>의 호랑이는 수성이 절멸되고 숭고한 인성을 획득한 존재인 셈이다.

중국설화나 한국설화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랑이는 흉포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중국설화에서 호랑이를 흉포하고 비정한 존재로 그리면서도 호랑이집단을 인간보다 우월하게 보는 이유는 구연집단이 호랑이를 토tem으로 여기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랑이에게 시집간 치방>에서처럼 사회적 강자의 부조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설화에서 호랑이는 흉포하지만 다정한 존재로 인간이나 인간세계를 염원하는 존재로 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단군신화에서부터 호랑이는 인간이 되려 했던 존재로 그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인간이 되지 못한 신화의 결론이 호랑이를 인간과의 공생에 실패한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일연이 <김현감호>를 통해 호랑이를 종교적 희생을 실천한 숭고한 존재로 형상화하고 이 설화의 전승에 의해 인간이 되지는 못했지만 숭고한 인성을 추구하고 성취한 존재로도 읽히게 되었다.

7. 결론

본고에서는 일연이 <김현감호>에서 중국설화와 비교한 점에 착안하여 인간과 호랑이의 결연설화에 있어서 한국설화와 중국설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려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에서는 배우자를 얻지 못한 결핍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호랑이라는 이류(異類)를 만

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호랑이의 수성(獸性)이 지닌 흉포성으로 인해 결핍의 해소는 바로 위기의 빌미가 되고 한국이나 중국설화 모두에서 공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한국이 인성(人性)을 존중하고 인성의 회복을 위해 호랑이와의 결연을 끊는 설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현감호전승설화에서처럼 종교적으로 승화된 숭고한 인성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호랑이의 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사회의 부조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물리적으로 인간보다 강한 호랑이의 힘을 존중하는 면을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호랑이의 흉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다른 인식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는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인간이 되지 못한 열등한 존재이라는 인식과 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숭고한 인성을 발현한 우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성에 비해 인성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중국에서는 호랑이를 토tem으로 숭상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특성에 물리적 힘의 존재를 존중하는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물리적 힘을 존중하는 경향이 중국적인 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설화구연자들은 이를 무시한 반면 중국의 설화구연자들은 물리적 힘 즉 흉포성의 장점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조리한 인간사회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한 대항의 존재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을 통한 공생은 한국에서는 호랑이 수성의 절멸을 통해서 인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부조리한 권위가 통하는 인간세계와 결별한 호랑이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호랑이와 인간의 공생에 있어

서 한국설화에서는 인간세계를 내세우고, 중국설화에서는 호랑이세계를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의 공생이 양쪽 세계의 교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누군가 한 쪽 세계에 동화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본고에서는 호랑이와 인간의 결연설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호랑이와 수성(獸性)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혔으나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陳慶浩·王秋桂 主編, 『中國民間故事全集』 총40권, 遠流出版社股份有限公司, 1989.
- 『한국구비문학대계』, 총8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이방 저, 김장환 역, 『태평광기』 18권, 학고방. 2011.
- 일연 저, 『삼국유사』 동방미디어 <http://aks.koreaa2z.com>
- 金官布, 『唐志怪小説 虎精故事中的 變形母題探研』, 『青海社會科學』 2012年 第6期.
- 김기호,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설화의 전통과 思惟體系』, 『민족문화논총』 31. 2005.
- 김정은, 『호랑이처녀의 변신과 희생에 나타난 대칭적 사고 고찰- 『삼국유사』의 〈김현감호〉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22집. 2011.
- 덩위첸, 『〈金現感虎〉와 太平廣記 소재 虎女 이야기의 비교 고찰』, 『東方文學比較研究』 第2集, 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4.
- 라인정,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고찰』, 『어문연구』 18. 1988.
- 박연숙, 『중국 호랑이설화의 한일 수용양상 비교연구- 「신도징(申屠澄)」과 「호화(虎禍)」 설화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34. 2006.
- 孫國江, 『虎俚故事的歷史根源』, 『民族文學研究』 2013年 5期. 2013.
- 송효섭,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 『국어국문학』 95. 1986.
- 오윤선,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우리문학연구』 43. 2014.
- 李虎周, 『韓·中 호랑이 說話 比較研究』, 『한어문교육』 (4). 1996.
- 林在海, 『金現感虎 說話의 研究』, 『한국민속학』 17. 1984.

- 程小花, 「〈申屠澄〉研究」, 『중국인문과학』57, 2014.
- 정연식, 「조선시대의 호랑이와 호환」, 『인문논총』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설의 설문」,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 조하연, 「〈김현감호〉에 나타난 호녀와 김현의 상호 인정 관계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23, 2012.
- 허원기,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 『동화와 번역』 5, 2003.
- 肖遠平, 「生命美學的直覺體驗-彝族苗族虎故事審美心理比較探尋」, 『貴州民族研究』 28卷, 2008.
- 唐楚臣, 「彝族民間文學中的虎圖騰」, 『民族文學研究』 1988年 第3期
- 허춘, 「說話에 나타난 호랑이의 特性- 『한국 호랑이 이야기』 검토를 겸하여」, 『열상고전연구』10, 1997.

논문투고일 : 2017. 1. 10. 심사완료일 : 2017. 2. 10. 게재확정일 : 2017. 2. 22.

Abstract

A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Perceptions of the Interspecies Relationship between a Tiger and a Human Being Based on Folktales

Son, Ji-bong*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Chinese folktales and Korean folktales in terms of an interspecies romance between a tiger and a human being, inspired by the comparisons made by Il Yeon, based on *Kimhyunkamho*, and other Chinese folktales. Chinese folktales and Korean folktales have this in common: a human being is involved in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tiger, a different species, since no human candidate for a spouse can be found.

Often in both folktales, the attempted relationships end in a crisis due to the violent bestiality of the tiger, which leads to the end of the symbiotic relationship. In Korean folktales, the human being often severs the interspecies relationship in order to restore his humanity and, as in *Kimhyunkamho*, tries to live a noble human life, which is elevated to a religious dimension. On the contrary, in Chinese folktales, the tiger's bestiality is regard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human condition, and the tiger's superior physical power is used to address the irregularities of human society.

Both folktales share a fear of the tiger's ferocity. The difference seems to derive from the fact that, in Korea, the Myth of Dangun and *Kimhyunkamh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ubsequent folktales and in China's case, the minority races worshiped tigers as totems and tended to respect physical power.

key words *Kimhyunkamho*, interspecies relationship, Korean and Chinese folktales.

* Ewha womans Univ.